

##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 대리점의 인사권 제한 및 판매가격 정보제공 요구 등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①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②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③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였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하였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원식 (044-200-4603)
		담당자	사무관	김영식 (044-200-4608)

**1**

**법 위반 내용**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계약에 대리점이 대표이사 등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채용 후보자 명단 및 이력을 제출받아 채용후보자에 대한 면담 등을 거친 후 해당 대리점에 채용 동의 회신을 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면서 판매부진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이처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대상, 채용 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7년 3분기부터 대리점들에 상품 판매가격이 포함된 손익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딜러 스탠다드 인센티브\*를 차감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 \* 분기 단위로 세일즈 트레이닝, 마케팅 부문을 각각 평가하여 필수항목을 충족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함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실제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개 대리점에 대해 딜러 스탠다드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을 본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 본사가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에서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9년 1월 전시장 시설지침 등을 마련한 후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목표달성 인센티브를 차감할 것임을 대리점에 공지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계약 등을 통해 대리점의 계약지역을 설정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일즈 클럽포인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 \*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판매대수 실적에 따라 대리점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함
- 이와 같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전시장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 다만,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손익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대리점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대리점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

##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항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3

##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아 온 대리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회복하여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 1. 스텔란티스코리아(주)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방실	1996. 9. 10.	220,193	207,085	4,391

## 2. 관련 법 규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